

社說

2025년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 그래도 희망으로 맞자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한 새해. 새로운 출발선에 선 모두에게 새해를 맞는 희망과 각오는 각별할 것이다. 새해에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져야 한다는 희망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여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다. 당장 지난 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절망을 넘어 분노를 안겼다. 하릴없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가올 미래의 희망은 커녕 앞으로 살아갈 날마저 두려울 지경이다. 정치의 실종도 현재진행형이다. 되돌아보면 2024년은 정치가 국민에게 좌절과 고통, 분노를 가져다 준 '최악의 한해'였다.

리더십의 한계가 독선 불리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흑역사였던

'비상계엄'이라는 기괴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50년 전으로 되돌렸고, 헌정사상 3번째 탄핵을 당해야 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차례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작금의 정치적 혼돈을 불러왔다. 독선과 불통으로 점철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그야말로 무도(無道)의 극치였다. 스스로 자초한 리더십의 한계다. 이를 막아야 할 야당의 부재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급급했던 민주당은 다수의석에 취해 입법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폭주를 일삼았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과 관련된 보복성 탄핵만 30차례 가까이 발의하며 국정을 혼돈의 도가니로 내몰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찾아보기 어렵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지향을 버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 상황도 최악이다. 계속되는 미·중 패권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다. 눈을 국내로 돌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부채의 덫'에 빠진 가계와 기업이 속출하고, 수출도 내수도 기대할 수 없다 보니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9%까지 내려갔다.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악의 출산율 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저출산 고령화도 절체절명의 과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2072년에는 47.7%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로 국가의 미래

가 있을 수 없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2925조 3000억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자료도 암울한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 힘으로 불확실성 맞서야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듯 우리에게 2025년은 희망의 해여야 한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는 광복 80주년인면서 조선을 사실상 일본의 반식민지로 전락시킨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120년이 되는 해다. 다시 밝아온 새해, 광복과 치욕의 역사를 거울 삼아 올 한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면서 과제다. 어느 때보다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맞는 새해지만 따뜻한 행복이 모두의 일상을 비추고 대한민국을 대화와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소

외되고 약한 이들의 눈물을 치유하고 어느 사이 사라져 버린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공정성도 되찾아야 한다. 내로남불과 위선, 후안무치,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을 배제하고 무기력하고 맹종적인 작금의 정치현실을 바꾸는 것도 한시가 급하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저출생과 양극화,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결국 이런 희망을 만드는 것은 깨어있는 국민이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거대한 민심의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지레 포기했던 20~30세대, 대한민국 젊은 이들의 숨어있던 힘과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였다. 그 대세를 몰아 이제는 어느 순간 사라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가짜 민주주의를 내던지고, 2025년부터 새로 시작될 대한민국의 진짜 민주주의를 준비해야 한다.

파괴적 혁신과 지혜로 새시대를 연다

이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다. 푸른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 지혜롭게 난세를 극복해 나가자.

2025년을 한마디로 내다보면 첩첩산중이라 할만하다. 2024년 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등장은 세계적인 혼돈의 시대를 예고했다. 계엄과 탄핵국면은 한국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 시켰다.

올해 경제전망은 어둡다. 거의 모든 기관의 전망이 비관적이다. 위기의 전망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 눈앞에 이미 우리의 몫으로 다가왔다.

올해의 트렌드 중 하나로 파괴자(Disrupter)라는 말이 나왔다. 파괴는 위기를 의미한다. 위기는 급격한 변화와 기존 질서의 붕괴를 예고한다. 그리고 시대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혼돈과 불확실, 파괴와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첫째로 지혜롭고 강한 정신이 필요하다.

조선 수군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무찔러 나라를 구했다. 그때 이순신장군은 필사즉생(必死即生)을 말했다. 죽기

로 각오하고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었다.

중국 한나라의 명장 한신은 조나라와의 전투에서 강을 등지고 싸우는 배수진(背水陣)을 펴 대승을 거두었다.

우리는 1998년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도 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사즉생'의 정신이 필요한 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기업가정신이기도 하다. 지혜와 도전의 창업 사업전환 혁신기술개발 협업 경영 등으로 위기 돌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기 때 기회가 있는 법이고 위기를 극복하면 시장경쟁력은 훨씬 강화되는 법이다.

둘째로 기업지원과 위기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여천화학대기업 광양제철 대불조선 등 영향력이 막중한 대기업부터 기업탄력성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적 경쟁과 무역관계가 핵심 변수이니만큼 대기업과 정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노사정 협력이 상호 생존의 길임도 알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전환도 매우 중요하다. 혁신 성장 중인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토털 솔루션 지원 정책 예산이 확대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도 시급하다.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기업합병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정부와 지자체

는 기업 위기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위기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외환 금리 무역 등 경제정책 관리에 실패해선 안된다. 경제 핵심동력인 기업위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대책을 신속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파괴적 변화와 파괴적 혁신이 요청된다.

지금은 기존질서가 한계에 다다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야 하는 파괴적 변화의 시대다. 전통적 산업과 방식은 무너지고 기존의 강자들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AI 디지털화 로봇 자율주행 등 새로운 첨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입혀야 살아남을 것이다. 기업경영도 플랫폼 기업, 유연한 조직구조와 경영 등 새 방식이 필요하다.

AI와 데이터센터도 신기술과 장비역량이 현재 진행되는 주력사업과 신속히 결합해서 새로운 상품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지 않으면 급속한 변화에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기존 정치의 파괴적인 혁신 아니고서는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하루속히 한국정치의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이 이루어지고 강력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해야 할 시대다.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해온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 위대한 지혜로 올 사년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

서석대



2024년 연말부터 한국 경제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얼어붙은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 여파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 장기화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광주 자영업자는 1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15만4000명) 대비 7000명(-4.5%) 감소했다.

전남 자영업자는 2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30만3000명) 대비 6000명(-1.9%) 줄었다. 이는 폐업 내지는 파산으로 인한 감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명(16.6%) 증가했고 실업률은 2.8%로 0.5%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최근 탄핵정국과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일상 회복, 경제적 충격 완화 등을 위해 1100억원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편성해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23개 사업 1185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예비비 105억원 등 175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예산이 미반영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을 축소해 예상됐지만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의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내내 음식점을 되살리고 소비를 촉진

하기 위해 예비비 44억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 월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총 3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외식업소 포장 용기와 앞치마 등 위생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떡깨비', '땡겨요' 등 공공 상생배달앱을 통한 할인이벤트와 배달비도 지원해 동네 소상공인의 매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일회성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을사(乙巳)년 새해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책들이 지속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조선 취재2부 기자**

새해 지역경제 활력 기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사진으로 보는 세상

1일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새해를 맞아 인공기 게양식이 열려 광장 상공에서 폭포가 터지고 있다.

AP/뉴시스